

# 국토교통부, 리야드 시(市) 개발 지원 방안 협의

## - 8일 사우디 리야드 시장 만나 한-사우디 스마트시티 등 협력방안 논의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8일(화)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아이야프(Faisal bin Abdulaziz bin Mohammed bin Ayyaf) 리야드 시장을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시티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면담은 스마트라이프워크(10.10~10.12. 서울시 주최) 참석 차 방한한 파이살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개발계획 ‘비전 2030’에 따라 탈석유시대에 대비해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리야드는 2030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인구 1,500만명의 친환경 국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고위급 방문 및 초청,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겸비한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시티 진출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파이살 시장에게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해 연말 개통 예정\*인 리야드 메트로의 확대 건설\*\*,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도시관리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 \* 도심 메트로 6개 노선(168km) 건설('13~'24.12월 개통 목표)
  - \*\* 2호선 연장 및 7호선 신설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논의
- 박 장관은 “한-사우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심으로 킹살만파크, 킹살만 국제공항 등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리야드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리야드 시(市)가 중동 최대 도시에 걸맞은 국제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향후 해외건설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한 팀을 이룬 원팀코리아를 파견하는 등 총력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24. 10. 8.  
국토교통부 대변인